

포항시, 350억 투입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본격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식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 등 속도
발전협의회 통해 지자체와 논의

포항시는 지난 9일 포항융합기술 산업지구 내 바이오 특화단지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벤처창업 혁신 거점시설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강덕 포항시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김일만 포항시의회의장, 경북도의원 및 포항시의원, 산학연 기관장, 바이오 기업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을 축하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지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포항시가 선정돼 총사업비 350억 원이 투자되며, 연면적 5700㎡로 지상 3층 규모로 건설될 계획이다.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연구 장비 및 시생산 지원 장비 구축 ▲기업



포항시는 9일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바이오 특화단지에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식을 개최했다.

입주 공간 제공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그린바이오 벤처 기업의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이번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으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포항에서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 거점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로 지역 바이오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을 가속화 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착공식에 이어 그린바이오 산업의 정책 방향을 지자체와 논의하기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경북, 강원, 전북, 충남, 경남 5개 지자체 및 유관기관장, 학계, 그린바이오 관련 기업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포항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협의회는 그린바이오 산업 우수 기업 소개 및 제품 전시 관람을 시작으로 그린바

이오 벤처 캠퍼스 구축을 위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5개 지자체 간 협력 MOU가 진행됐으며, 2025 CES 혁신상 수상기업인 포항의 미드바르 서충모 대표의 그린바이오 벤처창업 성공 스토리에 대한 기초 강연은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성과 및 향후 계획 ▲그린바이오 벤처기업의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과 중·장기 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가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와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를 발판 삼아 그린바이오 산업의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과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지구에 내년 경북 포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최지웅 기자 asdadx@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김해시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김해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에 3회 연속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은 자치단체,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환경과 서비스, 체험, 만족도 등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기간은 3년으로 2027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시는 2018년 처음 국민행복민원실로 인증받아 2021년에 이어 이번에도 재인증에 성공했다. 올해도 높은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해(경남)=이도식 기자

포항상공회의소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9일 지역 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겨울철을 맞아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연탄 5000장을 기부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상공회의소 임직원 25명이 참여했으며, 저소득층 가구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며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나주영 회장은 "추운 겨울, 연탄의 온기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포항(경북)=최지웅 기자 asdadx@

창원시

'10대 뉴스 선정' 온라인 투표

창원시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2024년 창원을 빛낸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연말 '창원시정 10대 뉴스' 설문 조사는 한 해 주요 정책에 대한 투표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창원을 빛낸 주요 정책 후보는 30개다.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새로운 50년 대 전환 시작 ▲마산 재도약 발판 마련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 활성화 ▲원기대로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안정적 정착 등이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김천시

오는 19일 청소년 테마파크 개장

경북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가 문을 열었다.

10일 김천시에 따르면 울곡동 일원 2997㎡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조성한 청소년 테마파크는 오는 19일 정식 개장한다.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돼 국비 45억원 등 총 160억원이 투입됐다.

실내 스포츠 어드벤처 시설이다. 실내서핑, 썰코스터, 버티컬 슬라이드, 핀클라임, 트랩폴링, 범퍼카 등 총 37종의 유아·어린이·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김천(경북)=김시훈 기자 silim53@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800억 맞춤형 특별자금 지원

부산신용보증재단-시중 은행
비타민 플러스 자금지원 '맞손'
2년간 보증재원 출연금 등 투입

부산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내년부터 2년간 총 1800억원의 맞춤형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11일 오전 11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비타민 플러스(P.L.U.S) 자금지원'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날 협약참여기관은 부산시와 ▲부산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부산 소재 미소금융법인 ▲부산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향후 2

년간 보증재원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을 비롯한 7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참여 은행은 특별출연과 함께, 기업에 대한 대출 실행, 우대금리 적용 등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부산소재 미소금융법인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직접대출을 지원해 저신용·채무조정 중인 소상공인 자금부담 경감에도 모한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을 바탕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폐업자 대상 개인보증 전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추진한다.

박형준 시장은 "맞춤형 자금 지원이 우리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비타민이 돼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남해·산청·거창군, 농촌 관광객 유치 도모

농촌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선정

경상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 공모에 남해군, 산청군, 거창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은 다양해지는 관광 수요를 충족하고 방문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주민 주도로 지역 공동체, 여행 전문가, 예술가 등 다른 산업 종사자와 협력해 창의적 관광상품 개발로 농촌 지

역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된 전국 20곳 가운데 경남에서는 남해군, 산청군, 거창군 3곳이 선정됐다.

개소당 2억 5000만원 사업비가 투입되며 3개 지역의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등과 민간 여행사가 협약해 농촌특화 테마 상품 개발부터 홍보와 운영까지 협업하게 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함평 빛축제.

"이번 연말은 전남에서 겨울축제 즐겨요"

함평, 신안, 담양 등서 이색 축제 열려

연말연시를 맞아 전남 곳곳에서 겨울 관광객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빛과 예술의 축제, 겨울 자연과 꽃의 조화로운 정원축제, 서남해 바다와 어우러진 해넘이 해맞이 경관 등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열린다.

오는 25일까지 함평 엑스포공원에

서 진행되는 '함평 겨울밤 빛 축제'에 선 미디어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작품이 전광판을 통해 상영된다.

신안에선 13일부터 1월12일까지 1004섬 신안 분재정원에서 '섬 겨울꽃축제'가 열린다.

담양에선 24~25일 담양읍 중앙로를 차 없는 산타거리로 탈바꿈해 산타와의 만남 이벤트, 캐릭터 퍼레이드 등을 추진하고, 다양한 야경 포토존과 지역 특산물 활용 먹거리 판매 공간을 통해 오감이 즐거운 축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대구시-경북 잇는 '대경선' 오는 14일 개통

구미~대구 간 30분 소요

경북과 대구지역의 교통망 혁신을 이끌 대경선이 14일 개통된다. 이번 개통으로 경상북도 8개 시군과 대구시를 아우르는 공동생활권 시대가 본격 열릴 전망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경선은 8개 역(구미, 사곡, 북삼(2025년 말), 왜관, 서대구, 대구, 동대구, 경산) 연장 61.85km로 광역 간 안정적인 통학·통근을 지원하기 위한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다.

철도 운행은 출·퇴근 시간 19분, 그 외 25분 간격으로 오전 5시부터 자정

까지 편도 48~52회(양방 100회) 운행한다.

차량은 2량 1편성으로 총 18량을 보유해 한 번에 296명의 수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미~대구 간 30분, 구미~경산 간 50분대로 연결해 출퇴근 직장인과 통학생 등의 이동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경선 개통과 함께 버스·도시철도·대경선 간 광역 환승이 확대된다.

기존 대구·영천·경산의 3개 지자체 간 환승에 더해 김천·구미·청도·고령·성주·칠곡의 6개 시군이 추가된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